등록번호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자	2014. 8. 23
결재일자	2014. 8. 23
공개구분	공개

	의 장

담당자	총무담당	총무담당관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정하영					
협조					

- 전라북도의회 ↔ 강소성인민대표대회 -

2014 교류대표단 중국 방문결과 보고

전라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목 차

Ⅰ. 국제교류 개요

1. 교류목적 1
2. 방문개요 1
3. 주요 방문일정 1
4. 방문단 명단 2
5. 세부 방문 일정 3

Ⅱ. 교류내용 및 교류지역 현황

1. 중국 강소성

1) 강소성 이학용 성장예방 4
2) 강소성 인대 상무위원회 라지군 주임예방 6
3) 강소성 서예가와 교류 간담회 8
4) 남경 강녕구 신농촌건설 참관 9
5) 주요 방문지 10
6) 강소성 현황 11

2. 중국 섬서성

1) 주서안총영사관 총영사 예방 15
2)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장 예방 16
3) 섬서성 현황 18

3. 중국 강소성·섬서성 방문성과 21

Ⅲ. 주요언론 보도내용 22

- 전라북도의회 ↔ 강소성인민대표대회 -

2014 교류대표단 중국 방문결과 보고

I 국제교류 개요

1. 교류목적

○ 전라북도와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및 **의회차원의 교류발전방안 모색**

○ 강소성 인대와의 **자매결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 확대 지원방안 모색

○ 섬서성 서안에 전북기업 진출 및 문화·관광교류 협력가능여부를 발굴하여 우리 도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

2.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4. 3. 31(월) ~ 4. 5(토), 5박6일

○ 방문인원 : 11명(의원 5, 공무원 6)

○ 방문지역 : 2개 지역(강소성 남경, 섬서성 서안)

○ 방문기관 :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주서안총영사관 등

○ 주요내용

- 자매결연 지역인 강소성 인대 상무위원회와 교류협력 강화
- 중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문화관광산업 등에 대한 비교시찰

3. 주요 방문 일정

일자		내 용	비고
3. 31(월)	12:30 16:00	○ 출국 → 강소성(도착 13:50, OZ 349) ○ 강소성청 및 강소성인민대표대회 방문	
4. 1(화)	14:45	○ 강소성 서예가 교류 간담회	
4. 2(수)	15:00	○ 이동(남경 → 서안 ZH 9295)	
4. 3(목)	14:00	○ **주서안 총영사관 방문**	
4. 4(금)	09:30	○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 방문**	
4. 5(토)	13:25	○ 귀국(인천도착 17:10, OZ 348)	

4. 방문단 명단

區分	姓 名	職 位	비 고
團 長	崔 振 鎬	全羅北道議會 議長	
團 員	權 昌 煥	全羅北道議會 議員 南北交流協力委員長	
〃	吳 均 鎬	全羅北道議會 議員 産業經濟委員會 委員	
〃	李 界 淑	全羅北道議會 議員 希望全北 院內代表	
〃	李 炫 珠	全羅北道議會 議員 環境福祉委員會 委員	
〃	元 鍾 律	全羅北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官	
〃	鄭 和 泳	全羅北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者	
〃	梁 承 秀	全羅北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者	
〃	趙 義 俊	全羅北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者	
〃	崔 圭 皓	全羅北道議會事務處 公報擔當者	
〃	黃 仁 英	全羅北道議會事務處 公報擔當者	
通 譯	鄭 煐 周	全羅北道 多文化交流課	
別 途	柳 熙 斗	全羅北道 上海代表处 首席代表	
〃	白 正 基	全羅北道 上海代表处 代表	

5. 세부 방문일정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제1일 3/31 (월)	06:00~10:00	240′	○ 전주 → 인천공항	-
	12:30~13:50	170′	○ **출국(인천공항 → 남경공항)**	OZ 349
	16:00~18:00	120	○ **강소성인민정부 예방**	
	18:00~18:30	30	○ **강소성인대 상위회 간부 예방**	
	18:30~20:00	-	○ **강소성인대 상위회 주재 환영만찬**	
제2일 4/1 (화)	13:20~14:30	70	○ 난징대학살 기념관 참관	
	16:30~18:00	90	○ 서예가 교류	-
제3일 4/2 (수)	10:40~12:30	110	○ **남경 강녕구 신농촌건설 참관**	버스
	15:00~16:50	110′	○ **남경공항 → 서안공항**	ZH 9295
제4일 4/3 (목)	14:00~15:00	60′	○ **주서안 총영사관 방문**	-
제5일 4/4 (금)	09:30~11:30	60′	○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 방문**	버스
제6일 4/5 (토)	13:25~17:10	165′	○ **입국(서안공항 → 인천공항)**	OZ 348
	18:00~22:00	240′	○ 인천공항→전주	-

Ⅱ 기관방문 및 교류지역 현황

1. 중국 강소성

1 중국 강소성 이학용 성장 예방

○ 일　　시 : 2014. 3. 31(월) 16:00 ~ 18:00

○ 장　　소 : 강소성 성장 접견실

○ 참석인원 : 26명

▶전라북도의회(14) : 대표단 11, 상해대표처 2, 통역 1

▷강 소 성(7) : 성장, 성간부 4, 외사위원회 2

○ 주요환담요지

【이학용 강소성 성장】

- 전라북도와 강소성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이 강소성을 방문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함.
- 양 도·성은 1994년 우호교류협력체결 이후 매년 다양한 분야 교류가 이어졌으며, 앞으로 쌍방이 진일보 전면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경제무역 교류를 강화하며, 상호 투자를 증대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람.
- 2009년 6월 라지군 성장 전북방문 이후 양도·성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전북도 고위급인사 방문 희망함.
- 양지역간 문화, 교육, 관광, 환경보호, 도시향진 건설 등 교류확대해 나가길 바람
- 다국적 500대 기업 중 300여개가 강소성에 투자하였으며 전북 기업도 진출할 것을 희망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제공하겠으며 쌍방의 협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음.

【최진호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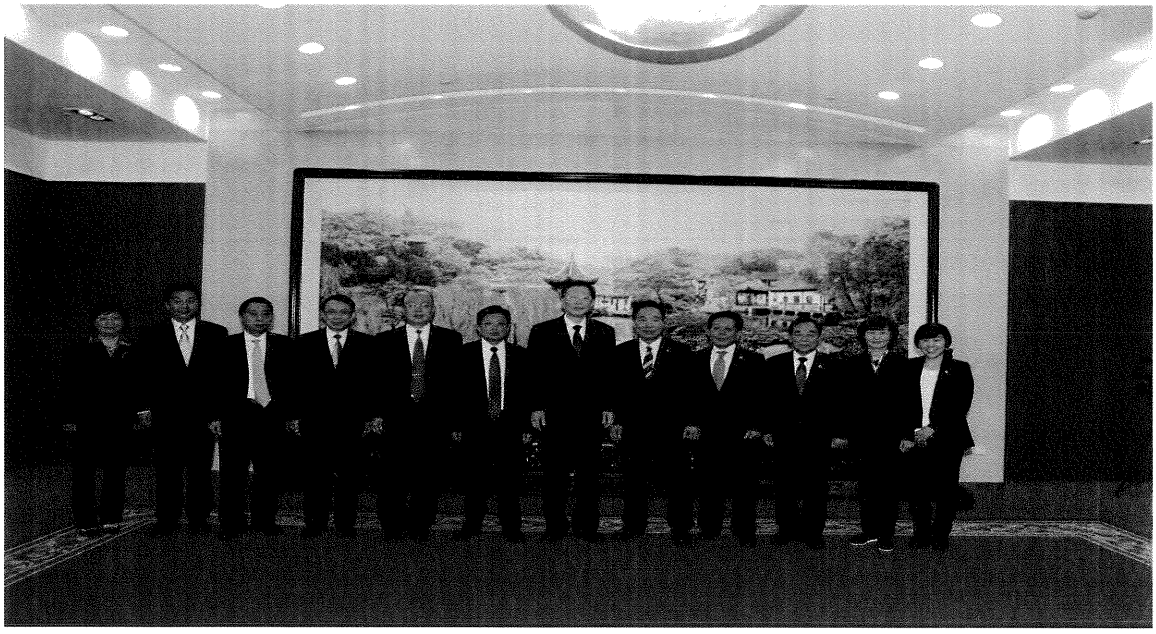
- 우리 대표단을 강소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감사드림.
- 강소성의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학용 성장님의 뛰어난 지도력에 존경을 표함.
- 전라북도와 강소성은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20주년이 되었고

그 동안 지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경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양 지방정부에게 많은 변화와 희망을 줌.

- 우리도의회는 양 지역간의 우호협력 및 공동발전은 물론 금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고위급인사가 방문하여 교류협력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이학용 성장 예방)



(이학용 성장 예방 기념사진)

2 강소성 인대 상무위원회 라지군 주임 예방

○ 일　　시 : 2014. 3. 31(월) 18:00 ~ 18:30

○ 장　　소 : 진링호텔 회의장

○ 참석인원 : 23명

▶전라북도의회(14) : 대표단 11, 상해대표처 2, 통역 1

▷강소성인대 상무위(6)

번호	성 명	직 위	소　속	비고
1	라지군	주 임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장위국	상무부주임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	조 붕	부주임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	여진림	비서장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텅 용	주 임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위원회 주임	
6	권민원	위 원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위원회	

○ 주요환담요지

【라지군 주임】

- 전라북도와 강소성 자매결연 20주년 맞이하여 방문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함.
- 전세계 금융위기 속에 한국발전상을 보면 놀랍고 전북과 강소성간 경제교류도 잘되고 있음.
- 의장님 방문과 20주년 기념을 계기로 양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강소성 인대상무위원회에서도 상호협력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역할 하겠으며 고위급 지도자 상호방문으로 문화공연, 요리, 수공예, 스포츠, 수학여행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최진호 의장】

- 전라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8년간 우호협력을 다져왔으며 매우 친근한 친구가 되었음.
- 이번 방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오랜 친구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양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람.

- 양 지역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분야 예산지원에 우리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겠음.
- 이번 강소성 방문을 매우 뜻있고 보람되게 생각하며 우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함



(인대 상위회 라지군 주임 예방)



(인대 상위회 라지군 주임 예방 기념사진)

3 강소성 서예가와 교류 간담회

○ 일　　시 : 2014. 4. 1 (화) 16:30 ~ 18:00

○ 참석인원 : 20명

▶전라북도의회(12) : 대표단 11, 통역 1

▷강소성 서화가(8명)

번호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고
1	리 샤오	중국서법가협회 이사, 해서위원회 비서장, 강소성 서법가협회 부주석, 국가일급미술가	
2	쉬 젠 밍	강소성국화원 예술위원회 부주임, 강소성미술가협회 이사, 저명한 산수화 화가	
3	왕 웨이 쥔	강소성서법가협회 비서장, 강소성청년서법가협회 주주석, 중국서법가협회 회원	
4	짜오 옌 궈	중앙미술대학교 박사, 중국서법원 연구원, 강소성 서법가협회 부비서장	
5	왕 쥐 밍	남경시공안국 서화원장, 강소성미술가협회 회원, 국가일급미술가	
6	쉬 종 샹	강소성미술가협회 회원, 강소성서법가협회 회원, 강소성국화원 초빙화가, 남경쿤정예술관장	
7	루 푸 춘	강송인대 홍보처장	
8	췌　용	강소성인대연구실 조사연구원	

○ 주요 환담내용

- 한·중 서예교류전은 문화적 동질성을 알아보고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및 **서예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상호방문 서예교류전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폭적인 협조요망



(강소인 서화가와 교류 간담회)

4 남경 강녕구 신농촌건설 참관

○ 일　　시 : 2014. 4. 2 (수) 10:40 ~ 12:30

○ 참관장소 : 강녕구 저우촌(周村), 황룽시엔촌(黃龍峴村), 스탕런자(石塘人家) 등 3개 마을

○ 참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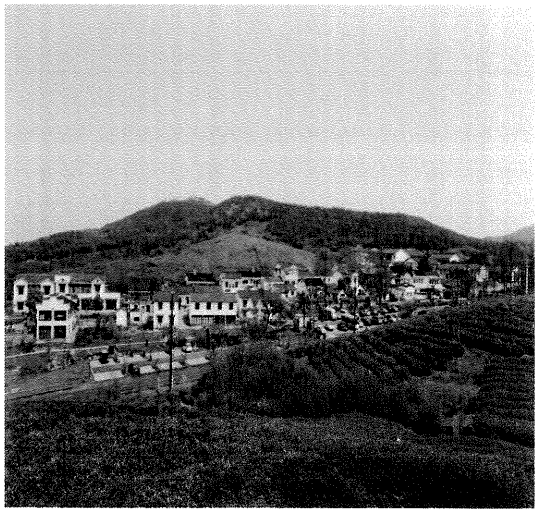
- 주촌(주촌사구공공복무중심) ⇒ 마마무덤, 노새무덤, 용 승천, 천년고관도(관운도로) ⇒ 석당인가 ⇒ 자연녹차 황용현촌

○ 참관내용

- 강소성 남경시 남서부에 위치한 강녕구는 2006년부터 신농촌건설에 착수하여 2013년 11월 13일 신농촌건설 시범구로 선정 되었음
- 사회주의 제도하에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정치·문화·사회 분야의 농촌개혁을 통해 농촌을 경제가 발전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살기 좋은 신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현대화 정책임
- 처음에는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나 신농촌건설 후 관광객 및 벤치마킹 인사가 많아져 자발적으로 주택에서 판매와 식당운영 등으로 농가수익이 높아짐
- 용 승천·마마무덤·노새무덤·천년고관도(관운도로) 등 스토리텔링으로 체험꺼리를 만들어 방문객 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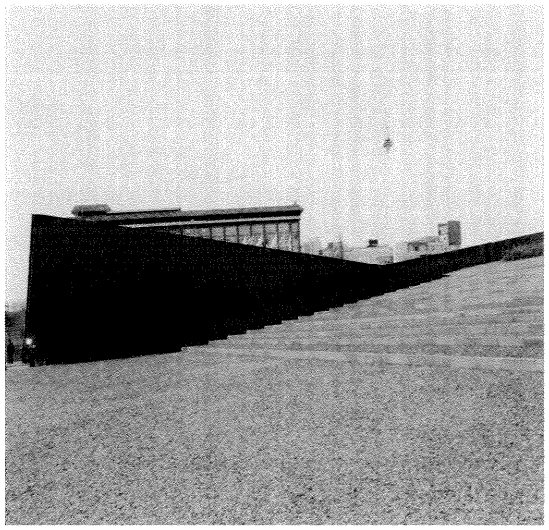
(공공서비스센터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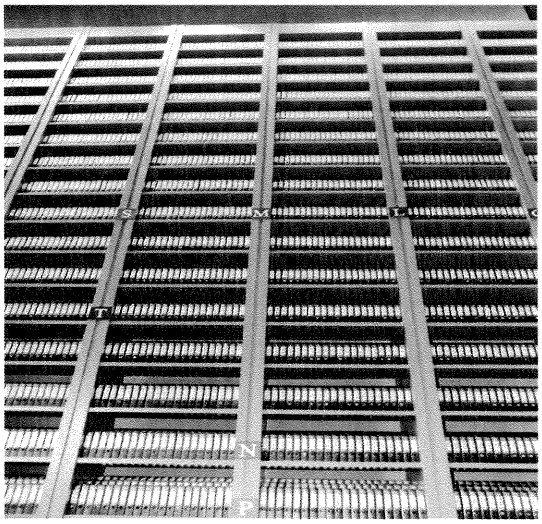


(자연녹차를 재배하는 황용현마을)

5 주요 방문지

난징대학살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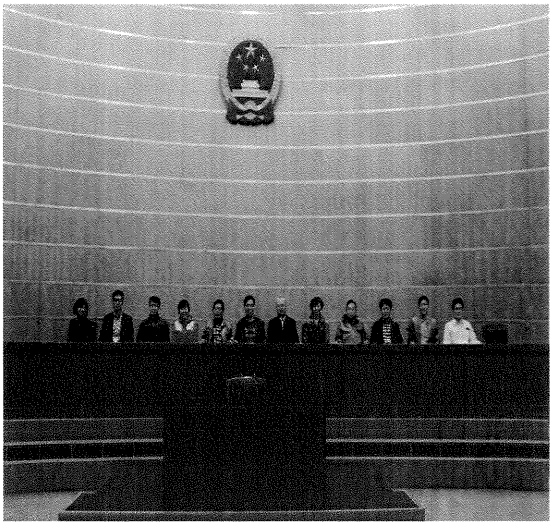




○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능가하는 비극의 역사, 난징대학살을 고발하는 기념관이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으로 꼽힌다.

○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 이 숫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있으나 기념관 앞을 지키고 있는 비석에는 여전히 300,000이라는 숫자가 크게 조각되어 있다.

강소성인대 상위회 본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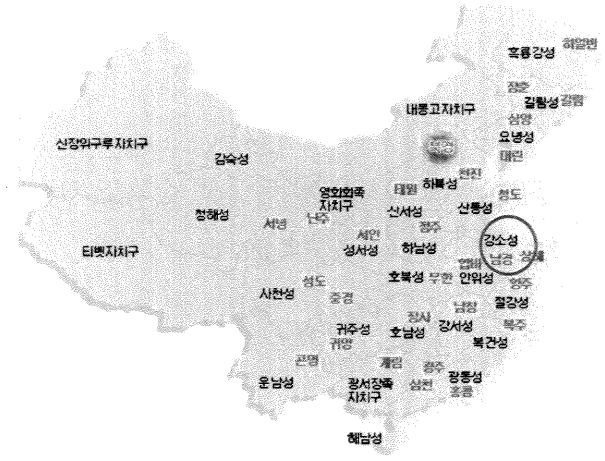




6 강소성 현황

강소성 일반현황

《현 황》





개 요

○ 위 치 : 중국의 동부연해, 상해시 서북쪽
○ 면 적 : 10.26만㎢ (우리도의 12.8배, 한반도의 46.4%, 중국의 1.06%)
○ 인 구 : 7,866만명 (우리도의 41배)
○ 성소재지 : 남경시
○ 기 후 : 아열대 온난기후
○ 행정구역 : 13개 시
○ 주요인사 : 라지군(당서기), 이학용(성장)

경제규모

○ 2013년 지역 GDP : 9,547억불
2013년 수출입총액 : 888억불(전국 2위, 13.2% 차지)

○ 주요산업 : 기계, 자동차, 전자, 화공, 방직, 컴퓨터, 반도체 등
- 주요개발구 : 소주공업원구, 난징경제기술개발구 등

○ 한국기업의 대 중국 2대 투자지역(전체 대중 투자규모의 약 1/5)
- 삼성전자(소주시), 포스코(장가항), 유니온스틸(강음시), LG전자(난징시), 기아자동차(염성시)등이 진출

○ 태양광산업 : 태양광산업은 강소성이 집중 육성하는 산업으로, 태양광 전지 기업 상위 10개 중 총 6개 기업이 강소성에 위치, 전지생산량은 전국 54%를 차지함

주요 관광지

○ 중산릉 : 신해혁명을 일으켜 공화제를 창시한 손문선생의 묘
○ 명효릉 : 명나라를 세운 황제인 주원장과 그의 부인 마황후의 합장묘
○ 부자묘 : 공자 사당
○ 소주 졸정원 : 1500연도에 지어진 개인정원으로 남쪽 정원 중 규모가 가장 큼
○ 양주시 : 강택민 주석 고향

주요 축제

○ 진링(金陵) 연등축제
-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 홍무년간(1368년~1398년)에 주원장이 명령을 내려 연등놀이를 함으로써 태평성대를 경축했다고 함

- 현재의 연등축제는 부자묘 지역을 중심으로 춘절(구정)부터 시작하여 한달간 지속됨

기　　타

○ 상해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이끌어온 선진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

○ 강소성 곳곳에는 호수·강·운하가 분포하고 있어 '물의 고장(水鄕)'이라 불림
○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鄕)'이라 불림
○ 중국에서도 저습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90%가 평원임
○ 중국 역사상 16개 왕조의 도읍지, 유구한 역사와 많은 유산을 간직하고 있음
○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말 속에서 강소성의 소주지역이 하늘의 천당에 비유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

강소성인대 상무위원회 교류내역

❍ 총 24회 210명(' 96. 1. 25 자매결연)
- 전라북도의회 → 강소성인민대표대회　12회 120명
- 강소성인민대표대회 → 전라북도의회　12회 90명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실적 : 총 261회 2,528명
- 전북도 ⇨ 강소성(99회 945명), 강소성 ⇨ 전북도(160회, 1,583명)

강소성 인대 주임 라지군(羅志軍, 뤄즈쥔)프로필



		▪ 라지군 (羅志軍, 뤄즈쥔)
		▪ 강소성 당서기
		▪ 1951년 11월 생
		▪ 요녕성 능원현 출신
학 력	1994~95	정법대학 정치행정관리학사, 법학석사
경 력	1968~78	중국인민해방군 베이하이함대 대원
	1978~80	북경의료용방사선기기회사 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 당 서기
	1980~90	「중국청년보」 신문사 발행부장, 비서장
	1990~93	중·일청년교류센터관리위원회 위원
	1993~95	중국공청단 중앙위원회 위원, 실업발전부 부장 공청단 중앙상무위원, 중국청년실업발전총공사 이사장
	95.9~02.1	남경시 부시장,
	02.1~03.4	남경시 시장, 남경시 당 부서기
	2003.4~08.1	남경시 당 서기(공산당위원회 서기)
	2008.1~2010.12	강소성 성장
	2010.12~現	강소성 당 서기
	2011. 02~現	강소성 인대 상위회 주임

강소성 성장 이학용(李學勇, 리쉐용) 프로필



- 리쉐용 (李學勇)
- 강소성 성장 겸 당 부서기
- 1950년 9월 생, 漢族
- 하북성 석가장(石家庄) 출신

학력	1982	북경화공대학 고분자학과 학사
경력	1968~77	흑룡강 생산건설병단 20단 병사, 중대장, 부대대장
	1977~78	북경 제4제약공장 노동자
	1982~84	북경화공대학 교수
	1984~95	국가과학위원회 기초연구 및 신기술국, 공업기술국 처장, 조건재무사(司) 사장(司長)
	1995~97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위원회 상무위원, 부시장
	1997~98	국가과학위원회 부주임
	1998~00	과학기술부 부부장
	2000~04	과학기술부 부부장, 당 직속 기관 당 서기
	2004~07	과학기술부 부부장, 당 부서기 및 직속기관 위원회 서기
	2007~10	과학기술부 당 서기 겸 부부장
	2010~11	강소성 당 부서기 겸 부성장, 대리성장
	2011.2~現	강소성 성장

2. 중국 섬서성 서안

1 주서안총영사관 전재원 총영사 예방

○ 일　　시 : 2014. 4. 3(목) 14:00 ~ 15:00

○ 장　　소 : 총영사관 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

▶전라북도의회 : 대표단 11

▷총영사관(4) :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김영덕 선임연구원

○ 주요환담요지

【전재원 총영사】

- 섬서성 시안은 중국역사의 중심지(13개 왕조 1,100년의 수도), 고대 실크로드의 거점이며, 2000년부터 중국 서부대개발 핵심 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
-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진출로 한국교민 4,263명과 조선족 2,000여명이 상주하는 한국타운(한국식당 40여개)이 형성됨.
- 최근 2013.6월 대통령 방문, 한국드라마 인기상승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 찾는 중국관광객 급격히 증가함.
- 기업진출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환경 등의 경제설명회, 경제협력포럼 개최, 기업진출 및 수출활동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이용 바람
- 한국주간행사, 관광홍보 및 문화공연, 관광사진전시회, 역사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기 바람. 특히 전북관광홍보 팜프렛을 제공해주면 홍보하겠음
- 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와 우호교류할 도와 시군 소개 요망. 특히 영하회족자치구의 수도 인촨시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적극 희망함

【최진호 의장】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을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림.

- 시안은 중국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축된 도시이며, 중국정부에서 수년 내로 크게 발전시킬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음.
- 시안은 중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하는 대륙횡단철도 중간기착지로 지리적 중요성이 큰 곳이며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실크로드의 시발점으로 서부지역의 편리해진 물류,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인하여 전북은 물론 한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영사와 직원들께서 전북은 물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회의 땅 시안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림.



(서안총영사관 방문)



(서안총영사관 방문 기념)

2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장 예방

○ 일　　시 : 2014. 4. 4(금) 09:30 ~ 10:30

○ 장　　소 : 서안지사 회의실

○ 참석인원 : 13명

▶전라북도의회 : 대표단 11

▷총영사관(2) : 지사장, 강영재 과장

○ 주요환담요지

【이영현 지사장】

- 많은 양의 전북관광홍보 팜프렛을 제공해 주면 중국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관광설명회와 관광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적극 지원하겠음
- 전라북도는 국제선 직항로 건설과 대규모 숙박·쇼핑센터 건설이 필요함.
- 시안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이며 하늘이 맑지 않아 중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쇼핑-새만금(바다)을 테마로 한 전북 관광상품 개발이 효과적인 상품임.

【최진호 의장】

- 한류의 영향과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건설 등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방한 수요창출에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전라북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식, 한지, 한옥, 한반 등 한스타일의 발상지로서 가장 한국적인 역사와 전통, 문화 자원이 있는 고장임.
- 시안을 비롯하여 중국 관광객들이 전북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양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람.



(관광공사 서안지사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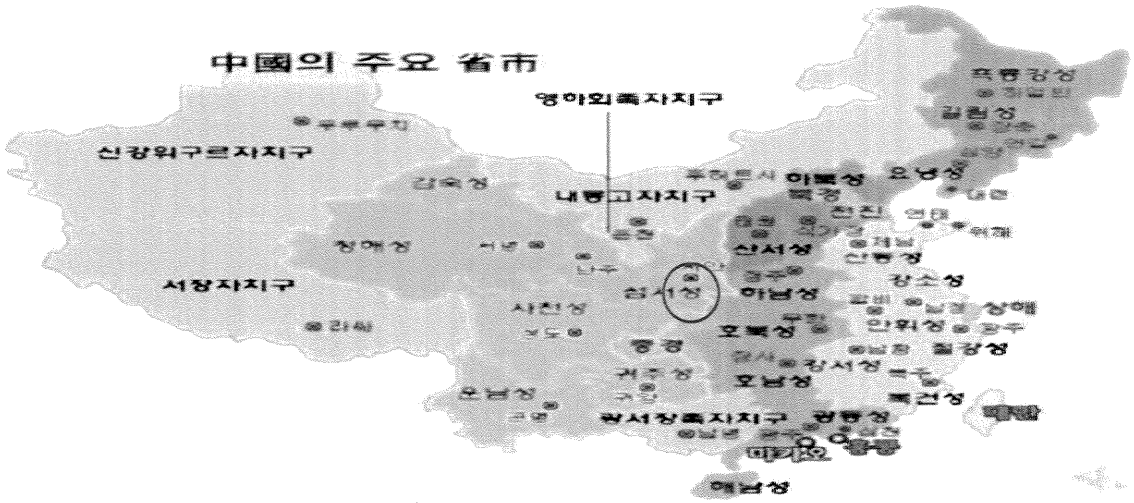


(관광공사 서안지사 방문 기념)

3 섬서성 현황

섬서성 일반현황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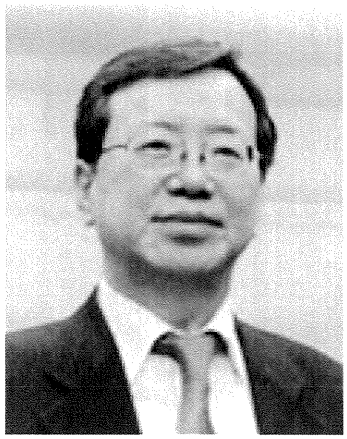
개 요

- 위치 : 중국의 정중앙, 황하 중류의 위치
- 인구 : 3,761만명
- 면적 : 20.58만㎢(중국 전체 면적의 2.1%, 한반도의 93%)
- 행정구역 : 107개 시·현 / 성도 : 시안
  - 주요도시 : 시안, 안캉, 바오지, 한중, 상뤄, 웨이난 등
- 주요인사 : 조정영(당서기), 루근검(성장)
- 1,100년간 13개 중국역대왕조(秦, 漢, 隋, 唐, 大夏 등)의 발원지로 진시황과 병마용으로 우리에게 유명하며, 성도인 시안은 중국 서북지역 최대 도시임

경제규모

- GDP(2012년) : 1조4,451억위안(12.9%)
  - 1인당 GDP 3만8,557위안(6,110달러)
- 소득(2012년) : 도시주민:20,734위안(13.6%), 농민: 5,763위안(14.6%)
- 대외무역(2012년) : 147.99억달러(1.1%)
  - 수출 86.52억달러(23%), 수입 61.47억달러(-19.3%)
- 자원: 석탄(중국내 3위), 석유(중국내 5위), 천연가스(중국내 3위)
- 관광수입(2012년) : 1,713억위안(29.3%)
  - 관광객: 2억23억명(26.1%)
  - 외국관광객: 335만명(23.9%)

주서안 총영사관 전재원 공관장 프로필

<table>
<tr><td colspan="2" rowspan="4"></td><td>▪ 전 재 원</td></tr>
<tr><td>▪ 주서안 대한민국 총영사</td></tr>
<tr><td>▪ 1955년 5월 15일 생</td></tr>
<tr><td>▪ 2002년 정부 근정포장</td></tr>
<tr><td>학력</td><td>1997</td><td>베이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td></tr>
<tr><td rowspan="9">경력</td><td>1997.12</td><td>주오클랜드 분관 1등서기관</td></tr>
<tr><td>2002.12</td><td>주밴쿠버 총영사관 부총영사</td></tr>
<tr><td>2001.07</td><td>외무부 홍보과장</td></tr>
<tr><td>2006.06</td><td>주상하이 총영사관 영사</td></tr>
<tr><td>2011.9~現</td><td>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able>

서안주재 한국관광공사 이형연 지사장 프로필

<table>
<tr><td colspan="2" rowspan="3"></td><td>▪ 이 형 연</td></tr>
<tr><td>▪ 한국관광공사 중국 서안 지사장</td></tr>
<tr><td>▪ 1964년 11월 16일 생</td></tr>
<tr><td rowspan="2">학력</td><td>1989년</td><td>고려대학교 중문과 졸업</td></tr>
<tr><td>2011년</td><td>서강대학교 중국경제 석사</td></tr>
<tr><td rowspan="9">경력</td><td>‘91.12</td><td>입사(公共关系室)</td></tr>
<tr><td>‘99.11-
‘00.12</td><td>아주부(亚洲部) 과장(课长)</td></tr>
<tr><td>‘01.1-
‘03.8</td><td>대만지사(台湾办事处) 차장(次长)</td></tr>
<tr><td>‘04.6-
‘05.6</td><td>기획조정실(企划室)</td></tr>
<tr><td>‘05.6-
’ 06.3</td><td>베이징지사(北京办事处)</td></tr>
<tr><td>‘08.10
- ‘11.11</td><td>자회사지원팀(子公司管理组)</td></tr>
<tr><td>‘11.11-
‘13.12</td><td>베이징지사(北京办事处) 부장</td></tr>
<tr><td>‘ 1 4 . 1
- 현재</td><td>시안지사(西安办事处) 지사장(首席代表, 支社长)</td></tr>
</table>

3. 강소성 · 섬서성 방문성과

○ **도 · 강소성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협력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 약속
- 2009.6월 라지군 성장(현재 인대주임) 전북방문후 도 · 성간 고위급인사 교류가 중단된 상태를 고위급인사 상호방문 재개 분위기 마련
- 양 지역간 문화, 관광, 건설 등 교류강화와 전북기업 진출 희망시 양질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제공 약속 받음

○ **강소성 인대와 전북도 의회간의 우호교류 추진의 중요성 확인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음**

- 양지역 고위급인사 상호방문을 통하여 문화공연, 요리, 수공예, 스포츠, 수학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교류분야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강소성 고위급인사(인대 외사위원회 텅용 주임)가 교류행사 첫날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됨

○ 강소성 서예가와 교류 간담회를 통해 상호방문 **서예교류전**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음**

○ 살기 좋은 신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강녕구 신농촌건설 참관을 통해 **우리도 농촌개발 선진모델**을 찾을 수 있었음

○ 주서안총영사관 방문을 통해 섬서성에 전북기업 진출 및 문화 · 역사 분야 교류 지원, 도 및 시군 우호교류 기회 확보로 **섬서성과의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와 관광산업 협조체계 구축**

- 국제선 직항로 건설과 대규모 숙박 · 쇼핑센터 필요성, 중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쇼핑-새만금(바다)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개발 제시로 우리도 미래 관광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 많은 양의 전북도 관광홍보 팜프렛을 제공해주면 중국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관광설명회, 관광사진전시회 등 개최시 지원 약속을 받음

III. 신문보도(스크랩)

전북도민일보

2014년 04월 15일 화요일 014면 특집

전라북도의회 대표단, 장쑤 방문 우호·협력교류

최진호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이 장쑤를 방문하였다. 장쑤성당위원회 서기 겸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뤼쯔쥔(呂志軍), 장쑤성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장을 맡고 있는 리쉐융(李學勇)이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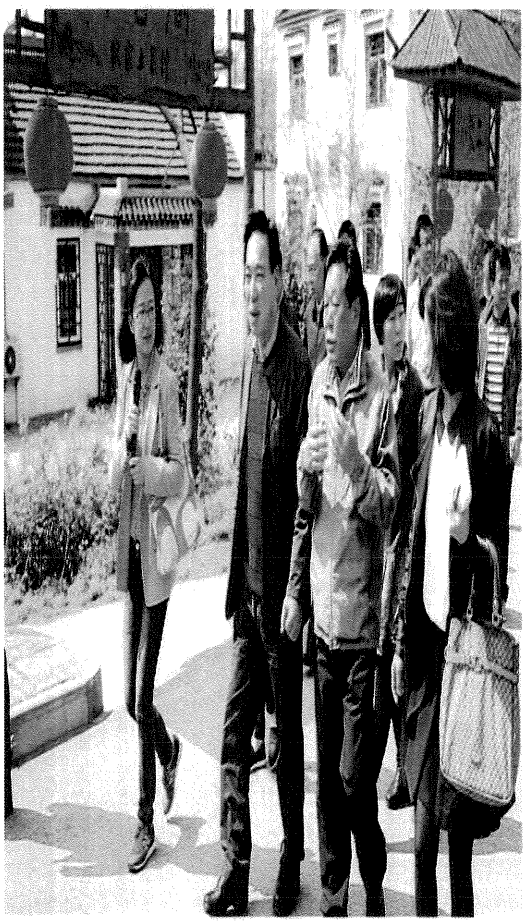
올해는 장쑤와 전라북도가 우호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 동안 쌍방은 적극적으로 각 분야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뤼쯔쥔 서기에 의하면 이번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의 장쑤 방문은 전라북도의회가 장쑤성과의 우호협력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근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확립하였는바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진일보 깊어지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범위와 차원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는 장쑤성과 전라북도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더욱 튼실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

현재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장쑤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은 여전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와 더불어 과거의 교류협력을 토대로 진일보 고위층의 교류를 강화하며 경제무역, 문화, 교육,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행복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리쉐융 성장은 장쑤성과 전라북도가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이래 내왕이 빈번하였고 협력성과도 매우 풍성하다고 하였다. 현재 장쑤성은 전면적으로 여유 있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 단계에 처해 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관건적 시기이기도 하다. 희망컨대 쌍방이 진일보 전면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경제무역 교류를 강화하며, 상호 투자를 증대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인문, 교육, 과학기술, 관광, 환경보호 및 도시향진 건설 등 영역의 교류협력도 적극 확대하여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장쑤성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에 노력하며, 국제무역 계획에 따를 것이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쌍방의 협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최진호 의장은 뤼쯔쥔 서기와 리쉐융 성장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오랜 기간동안 전라북도의회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쌍방의 교류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애써 왔으며 친밀한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또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번 장쑤 방문을 통해 장쑤의 역사문화를 더욱 많이 알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쌍방 주민들의 우정도 계속 심화되기를 기대하는바 미래에 교류가 더욱 확대된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최진호 의장(좌측 두 번째) 일행이 장쑤 신농촌을 견학하는 모습.

장쑤를 방문하는 기간에 대표단 구성원들은 장쑤 서예가들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난징 장닝구(江寧區) 저우촌(周村), 황룽시엔촌(黃龍峴村), 스탕런자(石塘人家) 등 신농촌 건설 시범촌을 견학하였다.

(장훼이청·焦會清)

全北日報
2014년 03월 27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대표단, 中 강소성 방문

전북과 중국 강소성이 올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대표단 11명이 오는 3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강소성을 방문한다.

전북도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과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은 올해 교류 20주년을 기념, 전북 태권도 시범공연과 전북 미술작품 특별전·축구 친선교류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진호 의장은 "강소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와 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표기자 kimjp@

새전북신문
2014년 03월 27일 목요일
012면 사람

전북도의회 대표단, 중국 강소성 방문



전북도의회 대표단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다.

전북도의회 최진호(사진)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5명과 공무원 6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방안과 의회 차원의 교류발전 방안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강소성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북태권도 시범공연과 전북미술작품전시 '전북특별전', 전북도-강소성 축구 친선교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94년 10월27일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와 강소성은 2010년부터 격년제 상호방문 형식으로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북중앙신문
2014년 03월 27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원 5명 중국 강소성 방문 교류발전 모색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5명이 5박6일 31일 전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부터 5박6일 동안 강소성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방안과 의회 차원의 교류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소성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전북태권도 시범공연, 전북미술작품전시 '전북특별전', 전북도-강소성 축구 친선교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1994년 10월27일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와 강소성은 2010년부터 격년제 상호방문 형식으로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최 의장은 "강소성 방문 기간 동안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 방안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전북매일신문

2014년 03월 27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대표단, 中강소성 방문 자매결연 교류발전방안 모색

전북도의회는 중국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및 의회차원의 교류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5박6일간 이곳을 방문한다.

도의회 방문단은 이 기간 강소성청이학용 성장을 예방하고,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라지군 주임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2016년 인민대표회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한다.

또 주서안총영사관 및 한국관광공사 서안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전북기업 진출현황 파악,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벤치마킹 등을 점검한다.

최진호 도의장은 "강소성 인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선진문화 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해 전북에 맞는 정책대안 발굴 및 제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문화,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증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황성조 기자(food2drink@)

새만금일보

2014년 03월 27일 목
002면 종합

도의회, 협력관계 한층 강화 중국 강소성 5박6일간 방문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강소성 교류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진호 의장, 권창환 의원, 오균호 의원, 이계숙 의원, 이현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다.

이들은 방문기간동안 강소성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방안과 의회 차원의 교류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도의회는 강소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전북태권도 시범공연, 전북미술작품전시 '전북특별전', 전북도-강소성 축구 친선교류 등을 추진한다.

최 의장은 "강소성 방문 기간 동안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방안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4년 10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와 강소성은 2010년부터 격년제 상호방문 형식으로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全羅日報

2014년 03월 27일 목요일 003면 해설

도의원 5명, 자매결연 중국 강소성 방문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 등 도의원 5명이 전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다.

최 의장은 26일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방안과 의회 차원의 교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1994년 10월27일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와 강소성은 그동안 도내 여자축구 등을 격년제 상호방문 형식으로 교류해 왔다. 올해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축구를 비롯해 태권도 시범공연, 전북미술작품전시 등이 이뤄진다.

최 의장은 "강소성 방문 기간 동안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 방안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국과의 스포츠 마케팅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차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운기자 · arg.s@

/편집=김성순기자 · wwjkss@